

군산시, 안전한 추석 명절 위해 총력전

18일까지 시민·귀성객 위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민생 전 분야 대상 취약계층 돌봄·특별 교통대책 가동·쓰레기 특별 수거·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군산시는 시민들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과 명절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추석 명절에 소외된 시민·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 △명절 특별 교통 대책 가동 △깨끗한 추석을 위한 환경정비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의 하나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미 5일부터 문을 연 종합상황실은 관련 부서와 연계해 4개 반을 편성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및 물가동향 파악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관리·축산물 위생점검(유통기한, 표시기준, 이력제 등) 부정 유통행위 단속·수급안정 대책 추진 등을 점검한다.

한편으로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이어진다.

지난 11일에는 주공시장에서 한국어 상소복지연합 군산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 30여 명과 함께 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올 추석에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소외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로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3

주간 3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위소득 100% 이내 저소득 취약계층 3,0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46개소를 위한 현금 및 물품을 지원했다.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결식우려 독거노인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도 함께 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추석 연휴 전인 12일~13일에 떡과 전 등의 명절음식을 사전 제공해 외롭지 않은 추석을 보내도록 지원했다.

연휴 기간에 직장을 나가거나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준비했다.

15일부터 18일 연휴 동안 만 3개월~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연휴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평일요율인 시간당 1만1,630원의 요금을 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명절 특별교통대책 가동으로 안전한 귀성·귀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임시버스는 추석 연휴 6일 동안 130여대가 증회되며,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32회가 증회된다.

시외버스는 주요 노선의 수요량을 감안해 매일 10대의 임시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시는 13일부터 18일까지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교통정보 지원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이용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로 귀성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을 위해 터미널 대합실, 화장실, 승·하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도 끝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학교운동장도 무료 개방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및 상습정체구간(37개소) 안내와 난폭운전 근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밖에 군산시는 9일부터 20일 2주간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연휴기간 특별수거일 지정 △수거일·수거 횟수 조정을 통해 쓰레기 증점 수거 및 적체 예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분산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시는 비상진료체계를 지휘할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의료기관 안내 및 문 여는 병의원·약국을 14일부터 18일까지 안내하기로 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상시 응급환자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고향을 찾는 귀성객,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수해 피해복구 지원에 감사"

익산 시장·주민들, 제35보병사단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정현을 익산시장은 12일 지역 방위사단인 제35보병사단을 방문해 익산시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던 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제35보병사단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북부권 일대에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6,200여 명의 군병력과 각종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수해복구 작전을 펼친 바 있다.

이날 방문에는 제35사단의 수해복구 작전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 중인 망성·용안·용동 주민들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제35보병사단 김범수실에서 진행된 방문 행사는 김광석 사단장의 환영 인사와 정현을 시장의 감사 인사로 시작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군 장병 위문

추석 맞아 감사·격려 전달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

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중령)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격려에 큰 힘을 얻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다이어움' 민생회복 특별 할인 진행

기존 혜택 20%·정책 할인 10% 추가로 최대 30%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특목'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9월 다이어움(多어움) 민생회복 특별 할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다어움 20% 할인 혜택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발행량은 44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7%가 증가했다. 1~10일 신규 가입자도 3355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번 민생회복 특별 할인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0일 기준 다이어움 결제액은 156억 원으로 발행액 증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9월 한 달간 기존 10%였던 할인율을 20%로 확대했다. 구매 한도인 70만 원을 충족하면 14만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물, 착한가격업소, 지역 서점 등 연계 가맹점 75개소에서는 정책 할인 적용으로 다이어움 결제금액의 10%가 추가 지급돼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할인을 2배 상향이라는 과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재원 마련에도 힘썼다.

발행액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억 원 확보했다.

또한 다이어움 발행액이 지역 내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11개소 내 다이어움 등록 가맹점에서 5일부터 18일까지 다이어움으로 누적 3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해 다이어움 1만 원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지역 서점에서도 진행된다. 다이어움으로 2만 원 이상 도서를 구입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다이어움 1만 원 추가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재난지원금

추석 전 신속 지급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

시는 농업·주택·소상공인·수산양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약 117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분야별로 주택·소상공인 36억원, 수산양식 피해 등 4억5,000만원, 농작물과 농기계·설비 후유피해 복구비 76억원이 지급된다.

이중 주택·소상공인 복구액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돼 지난달 29일 우선 지급했으며, 다른 복구액도 추석 전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난 7월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창구를 마련하고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피해 접수와 조사를 진행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83억원이 집계됐으며, 복구액은 약 11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결정했다"며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추석 명절 전 지급

군산시는 12일 관내 847개 어가를 대상으로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책수당이다.

총 5억 820만 원의 규모이며, 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씩이다. 수당은 군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충전을 통해 지급된다.

관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